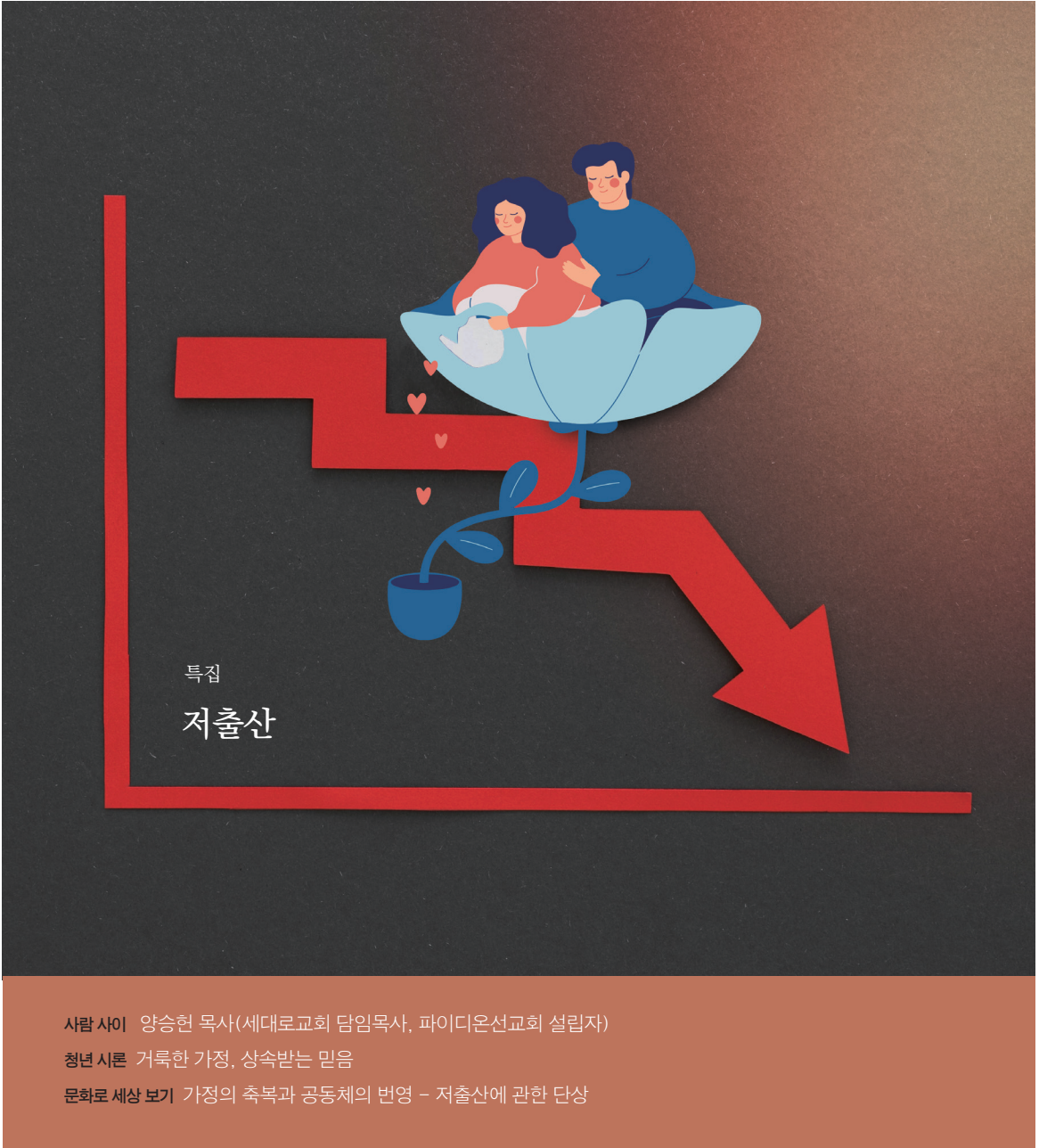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9+10
SEP + OCT
2023 vol.26



특집
저출산

사람 사이 양승헌 목사(세대로교회 담임목사, 파이디온선교회 설립자)

청년 시론 거룩한 가정, 상속받는 믿음

문화로 세상 보기 가정의 축복과 공동체의 번영 - 저출산에 관한 단상

ISSN 2671-8731

Contents

SEPTEMBER + OCTOBER · 2023

시선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자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대한민국[교회]의 붕괴’를 넘어설 소망의 비전 | 신국원 04

특집

저출산

생육과 번성, 홍수와 인구조절 | 기민석 06

소멸을 막는 생명 공동체, 교회 | 김기억 08

한국 사회의 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이상민 10

다섯 자녀의 아버지로 살기 | 양성만 12

결혼과 출산의 의미 | 김보경 14

초저출산 위기에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 김태황 16

‘반(反)의 시대’에서 ‘합(合)의 시대’로 나아가기까지 | 전명희 18

저출산, 그리고 생명 | 최현일 20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넘어 | 김반석 22

사람 사이

‘저출산’에 대하여 :

양승헌(세대로교회 담임목사, 파이디온선교회 설립자) 24

섬김의 자리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 | 박해일 28



2023. 9+10월호 | 제26호(통권 241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거룩한 가정, 상속받는 믿음 조나은	30
창조주와 죄인, 그리고 사랑 박은찬	32
청년 일터 이야기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일터 백유미	34
그들이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행 2:1) 오유리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미래 디스토피아, 사랑과 생명이 희망이다 추태화	38
미술을 보다	
가정의 축복과 공동체의 번영 - 저출산에 관한 단상 서성록	40
책을 보다	
세계관 특강 :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선지자적 비관주의 석종준	42
문화 복음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 <그림책의 세계관> 읽기 지상선	44



교회 路

총현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소개	
총현교회 초등학교생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유현정, 신경철	46
총현교회 기독교 세계관 학교 수료자 소감	47

은전한 지성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5) 철학과 기독교 최용준	48
제5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선하신 하나님,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실까?	50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자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동역회 명예이사장)



인구문제는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비웃는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Th. R. Malthus)는 식량 사정이 좋아지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으나 그 정 반대 현상이 일어났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극단적인 표어로 산아제한을 독려하던 한국이 역사상 세계 최악의 인구절벽을 맞게 되었다. 중국은 1982년까지도 ‘1가구 1자녀’ 정책을 법제화하여 인구 증가를 통제했는데 벌써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문제는 부분적으로 자연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예측을 빚나가게 해서 인간 현상이 얼마나 복잡하며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절감하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라는 말이 실감되고 겸손해진다.

0.7에 불과한 지금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할 때 한국 인종에 의한 한국이란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동안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막대한 돈과 시간이 투입되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물론 이제까지의 예측이나 처방이 잘못되었으니 절망적이란 이 주장도 오류로 드러날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 레비스

트로스(C. Lévi-Strauss)는 인구가 과밀하면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에서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인구밀도가 줄어지면 출산율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러한 “자연적 기적”을 믿고 낙관할 수 없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생산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외국 근로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5천 년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부질없고 힘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므로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이 격변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미 선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혀 새로운 다른 나라로 바뀌질 것이고 그것은 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반도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같은 언어와 풍속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타민족, 타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이룩될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조화롭고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차대하고 필수적인 과업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최대 종교인 기독교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결혼하고 가능한 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될 사회를 복음화하고 그 사회에 성경적 세계관을 정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형성될 다문화 사회에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본래 이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당분간은 사회를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신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종파적 이기주의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더 충실해야 정의와 평화가 그만큼 더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결혼과 다산은 이제 자신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 인구절벽을 가져온 중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 한국 문화의 철저한 차세중심적 세계관(Diesseitigkeit)과 그것에 근거한 근시안적 이기주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독신으로 남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자녀를 두지 않거나 하나만 갖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

정을 만드셨고(창 2:18)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제공하셨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를 믿는 데서 오는 기쁨과 안정감, 재롱부리는 아기, 스스로 커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다른 무엇도 줄 수 없는 행복이며 모든 수고와 비용을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다문화 사회를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철저히 사해동포주의적이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 거기다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 및 외국 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그러므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문화 사회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임무뿐만 아니라 능력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차피 다가오는 이 획기적인 변혁을 새로운 사회의 복음화와 기독교 세계관 정착의 호기로 이용하도록 각오하고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대한민국[교회]의 붕괴’를 넘어설 소망의 비전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편집위원 한 분이 추천한 책 <대한민국의 붕괴>의 제목은 과장이 아닙니다. 0.7에 불과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단적 자살 사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공포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호의 공통적 주제는 생명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비전 회복과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시선>은 저출산을 5천 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대적인 이민 수용이 대안일 터인데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관건이라 했고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소망을 품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과 사명도 강조합니다.

<특집>에서 기민석 교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창세기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줍니다. 생육과 번성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했고요. 수영로 교회 김기억 목사님은 이규현 담임목사님이 매주 주일예배에서 행하는 ‘아기 축복 기도’가 젊은 부부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격려의 유익을 소개합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저출산은 온갖 사회적 문제의 시발점이기에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극복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양성만 교수는 5자녀를 두게 된 것에

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보경 교수님은 저출산의 중심에는 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공적 의미를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를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낳아 키울 용기를 가질 사람은 그리스도인뿐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황 교수님도 복된 기독교 가정이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공감력을 확충할 때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네요. 생명과 가정과 공감의 가치를 두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개인과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며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명희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와 비친족 가구 같은 가족 구조 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문합니다. 탈가족화와 돌봄이 공적 책임으로 이양되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경험이 희망으로 전환하는 계기이므로, 기독교 공동체가 창조질서에 따른 가족의 중요성과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과 인내를 가지고 긴 여정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현일 박사님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에서 바라보는 저출산 문제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김반석 형제는 일본의 경우를 거울삼아 더 크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넘어서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서나영 교수님이 만난 양승현 세대교 교회 담임목사님은 다음 세대 양육을 ‘선교’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파이디온선교회를 설립해 평생을 다음 세대 선교와 교육에 헌신한 분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책임 회복에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있다고 했네요. <섬김의 자리>엔 기독교학문학회의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편집장 박해일 교수님이 신앙에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뇌과학 분야에서 기독교적 연구를 해온 여정을 들려줍니다..

<청년 시론>에서 조나은 자매는 저출산 문제를 물질주의와 직결된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신앙 유산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물려줄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은찬 형제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아들 삼으신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눕니다. 아울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 부족함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에 일어난 변화를 나눕니다.

<청년 일터>의 백유미 자매는 신앙개발 연구 활동에 소명을 품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 됨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우리 자매는 대학 졸업 후 진로 모색에서 겪었던 신앙적 씨름과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상실감을 극복하며 교회와 직장에서 스터디 모임을 통해 만난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는 기쁨을 들려줍니다.

<영화를 보다>에선 추태화 교수님이 인류 멸종 위기에서 구원을 다룬 <칠드런 오브 맨>이 보여주는 사랑과 생명의 희망을 소개합니다. 아기의 출생이 없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시대정신이 낳은 디스토피아 세계가 어떻게 사랑과 생명의 길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서울시의 '아빠 엄마 행복 프로젝트' 입상 사진 <첫 만남>에서 본 소망을 전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에서 공동체의 변영이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

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석종준 선교사님이 손봉호 교수님의 신간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강조한 설득의 세 요소를 지렛대 삼아 소개하고, 지상선 교수님은 현은자 교수님의 그림책이 투영하는 세계관에 관한 연구서 <그림책의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교회 路>에선 70년 역사의 충현교회 한구삼 담임목사님의 미래 세대 신앙교육 강조로 시작된 초등학교 세계관 학교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주일학교의 좋은 모델입니다. 신경철 목사님의 기획 설명과 유현정 전도사님의 경험을 나눕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최용준 교수님이 도여베르트의 철학과 기독교론을 소개합니다. 비기독교 철학과의 대립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학문 공동체의 회복과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이론적 사고의 선형적 비판과 4개 종교적인 문화의 근본 동인 분석을 소개합니다. 또한 여름 방학에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제5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호는 젊은 동역자인 소장학자들이 꾸며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호는 우리 현실의 이품인 저출산에 관한 우려와 모색의 희망이 섞인 글들을 실었습니다.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주제이며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동역회 회원과 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소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번 애써 주신 편집위원들과 필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생육과 번성, 홍수와 인구조절

기민석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성서학 교수)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라는 말은 잘 알려진 성경 속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간에는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198위라고 밝혔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역임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했으며, 옥스퍼드대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한국에서의 국가적 인구 소멸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위기 정도가 아니라 공포다. 수년 전에 비하여 매우 썰렁해진 대강당을 보면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일하는 필자는 그 공포를 몸소 체험 중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기를 가지지 않으려는 신혼부부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 반면에 가지고 싶어도 불임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 또한 곤경에 빠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창세기 1장 28절을 잘 들여다보면, 이는 명령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새번역). 이어진 내용과 또다시 성경에 언급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관찰해 보면, 사람 수를 충분히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인구 증가를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원어는, “열매 맺고 (자식을 낳고), 많아져서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은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뒤따르는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단지 출산 도모에 있지는 않다.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출산의 목적은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공간을 잘 운행하기 위함에 있다. 무조건 많이 낳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구의 과잉 성장은 과거에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큰 문제였다. 원시사회에서는 한정된 식량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인구 증가를 제어해야 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왕정이 히브리 노예

의 번성을 염려하여 집단적 남자 유아 살해를 집행했다.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이 인간을 물로 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인간의 소음 때문이었다. 시끄럽다는 것은 인간의 과잉번성을 의미한다. 이는 원시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염려가 신화에 투영되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이 자녀를 둘이나 하나만 갖자고 사회적 지침을 두었던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문제의 초점은 적은 인구수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다. 문제는 인구가 번성해서 사람이 사는 공간과 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다. 인구가 적어도 잘 살고 훌륭하게 운영되는 선진국도 많다.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거나 못 낳는다고 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인구 절감’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이민자로 대체하는 것이 염려된다고 솔직히 말하는 지인들이 많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더라도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겠다는 신앙적이고 사회 도덕적인 인식을 함양해야 하지 않을까? 육아와 자녀 교육 등의 현실적 문제가 염려되어 아기를 낳는 것이 두렵다는 젊은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세워서 마음 편하게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옛날처럼 남녀는 무조건 결혼해야 하고 여자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야 한다고 권유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열심히 결혼하고 자식을 줄줄이 낳아 첫 인류는 잘 번성했다. 하지만 자신의 터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는 달리 번성한 인구의 율리성이 문제였다(창 6:5). 그러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구수의 유지 또는 번성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사회를 잘 운영하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남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축복이 명령에 앞섰다(창 9:1).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이었는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번성하여도 사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된 정책을 내놓으셨다. 창세기 9장 2-6절이다. 종전의 채식 명령을 수정했는데(참조, 창 1:29-30), 하나님은 문제였던 인간의 폭력성을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확장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을 통제했다. 인간이 생명이 있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살해는 금지했다(참조, 창 1:26-27).

생육과 번성은 이를 통해 인간이 사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같은 명령을 야곱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번성을 통해 왕이 나올 것을 축복하셨지, 막대한 인구수로 거대 민족 형성을 바라지는 않으셨다(창 35:11).

FAITH & LIFE

✍ 글쓴이 기민석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성서학 교수이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두란노), <구약의 뒷 골목 풍경>(예책), <한국 성도를 위한 예언서 강의>(예책), <성경속 공감 이야기>(디사이플),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홍성사)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일보에 <인문산책>을 연재하고 있다.

소멸을 막는 생명 공동체, 교회

김기억 (부산 수영로교회 가정사역 영역 총괄목사)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이다(롬6:23). 현대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도 인간을 죽음에서 건질 수 없다. 일평생 수고하다 흠으로 돌아갈 뿐이다(창3:19). 인생사를 가만히 보라. 인간은 죽고, 죽은 자는 잊혀진다. 죄인의 결론은 ‘소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유사하다. 2001년부터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지금은 초저출산 국가다. ‘국가 소멸’ 경고등은 켜진 지 오래다. 2022년에 세운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신기록은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 0.70명’으로 경신되었다. 이 기록도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한다. 결혼해도 출산을 거부한다. 지난 2006년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가 예견한 ‘인구소멸 1호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멸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녀 차별적 문화, 경쟁주의, 높은 생활비와 과도한 교육열 등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보육제도와 근로 문화 개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소멸의 이유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다(사64:7). 문화나 제도, 경제 문제보다 깊은 곳에 ‘인간의 죄성’이 있다. 나만 위하는 이기심(利己心)이다. 결혼과 출산이 요구하는 이타적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탄의 충동이 있다. “너를 만족시켜라!” 사탄은 인간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지운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을 만든다(삿17:6, 21:25). 그 결과는 사랑에 대한 오해다. 사랑을 욕망과 쟁취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본래의 의미를 잃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요일4:10).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롬5:8). 인류의 모든 고통은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되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소멸을 막

는 힘은 사랑에 있다.(아8:6-7). 그래서 길은 명확하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Ad Fontes)이다. 언제나 성경이 답이다. 저출산의 해법도 성경에 있다. 우리는 태초의 가정에 주어진 창조주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8)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가정의 근원이다. 여기서 멀어지면 인간도, 가정도 길을 잃는다. 창조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작은 출산과 양육을 '복'(773)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는 축복이다. 자녀는 부모를 짓누르는 책임과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자녀가 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노래한다. 자녀는 창조주의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자녀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 수영로교회가 매주 주일 예배마다 '아기 축복기도'를 하는 이유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생후 100일 전후의 아기를 안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매주 3~4명 아기를 축복하는데 매번 아기가 등장할 때마다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자연스레 교회에 따뜻함이 흐르게 된다. 또한, 3040세대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 유익하다. 일부러 등록하는 남편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목회적 유익이 목적은 아니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사역이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녀를 낳는 이유는 사랑이다. 의무감으로 안된다. 위

기감을 조성한다고, 돈을 준다고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녀를 키우기 힘들니까 도와주겠다"라는 방식의 접근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사랑이 핵심이다. 자녀를 축복으로 여겨야 출산을 결심한다. 그러려면 부모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교회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 뒤에 '정복과 다스림'을 명하셨다. 인간의 사명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리 통치자로 키우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교회는 '자녀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며 마주하는 주요 단계들(Milestones)을 축복하는 동시에 각 단계에 필요한 목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그 모습이 공동체에 '자녀를 낳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된다.

"나도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힘들겠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저출산은 미래에 대한 염려다.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문제'다. 문화적 영향이 크다. 인식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도 개선,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녀를 축복하며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을까? 교회다. 교회는 소멸을 막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아니, 교회가 해야 한다. 교회는 생명 없는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기억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담임목사) 가정사역 영역 총괄 목사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남침례 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교육학 석사(M.A.C.E.), 교육목회학 박사 가족 목회 전공(D.Ed.Min in Family Ministry)에서 공부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 위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직장문화, 육아 휴직을 쓰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 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고용 증가, 치솟는 물가와 낮은 임금, 결혼·출산을 가로막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돌봄 공백의 지속, 결혼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청년층의 '비혼' 문화 확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청년층 증가 등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공공 보육 시설의 부족과 출산·육아 환경 문제,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주거 문제, 갈수록 급증하는 과중한 사교육비와 교육비 문제, 직장에서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청년 일자리와 취업 문제로 요약된다.

유엔인구기금이 펴낸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한국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는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위

기를 극복할 근본 대책은 청년층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육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은 출산하면 경력이 단절된다는 두려움 대신 출산하면 국가의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그렇기에, 출산에 따른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자녀 출산이 곧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족 친화적 정책과 더불어 긍정적인 보육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월급을 받아 집을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에서 시작하여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맞벌이 부부는 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거나 육아도우미를 쓴다.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는 여성이 많다. 청년 일자리로 정규직은 매우 적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태반이다. 청년층이 한국 사회가 살 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이를 포기한다. 지금 청년층 본인이 살기도 힘겨운데, 자식에게 이 처지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총체적

으로 개선하는 획기적이고도 혁명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한국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출산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고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에서 인구 감소의 영향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돈을 살포하는 등의 땀질 방식의 정책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많은 국가가 이미 경험한 실패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저출산과 관련하여 시행된 정책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과도한 경쟁에 몰린 청년층의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 대책만 늘어놓은 것이다.

이제 과감하게 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할 때이다. 그리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획기적 개혁, 곧 교육제도를 비롯해 기업문화와 가정문화에서 총체적 혁신이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나아가, 삶의 질을 끌어올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하여 엄격하고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육과 교육, 주거와 복지, 고용과 노동, 보건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출산·보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의 미래와 존망이 달린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 및 이후의 모든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재검토하여 인구와 관련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 전체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치인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앞장서서 출산을 돕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안 제정과 법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도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때문에 생겨날 피해의 당사자임을 자각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을 지원하는 고용·임금 체계, 직장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는 앞으로 생겨날 온갖 사회 문제의 시발점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정치인과 기업은 물론 대다수 국민은 이 위기를 마치 먼 나라의 일인 듯이 무감각하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어쩌면 이 위기를 감지하고 있더라도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전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만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깨어 있는 시민'과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기술 체계>, <잊혀진 소망> 등이 있다. <프랑스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했나 - 삶의 질을 위한 인구정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다섯 자녀의 아버지로 살기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철학 교수)



어쩌다 보니 다섯 자녀를 두게 되었다. 소원이나 기도의 성취는 아니다. 결혼 첫해에 아이를 낳은 후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둘째를 낳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이 아이가 순해서 한 명 더 키워도 좋겠다는 생각에 셋째를 낳았다. 넷째의 임신 소식은 사실 나이 50을 코앞에 둔 나에게 충격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더 주셨다. 그 덕에 ‘애국가’, ‘능력자’라는 덕담을 듣는다.

그 배경에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낳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을 강단이나 교우들의 입을 통해 종종 들었다. 나처럼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은 그 교회에는 여럿 있다. 외국의 개척교회 계열의 교회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한다. 많은 자녀가 복이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은 창세기 1장 26~28절에 나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

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스킨더(Klass Schilder) 박사가 ‘문화명령’이라고 일컫는 이 구절은 사람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알린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 넓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 좀 거칠게 말하자면 자녀를 낳아 잘 키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존재 목적의 절반은 수행한 셈이다.

똥판지같은 생각을 해 본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굳이 이런 불편한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성품과 능력을 완비한 성인으로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지어 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인생의 문제 절반은 해결되는 게 아닐까?” 그랬다면 문화명령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을 거라고 상상해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도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셨듯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도 불완전한 사람에게 맡기는 불안한 방법을 택하셨다. 시간 속에서 몸으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일을 힘들고 지루하고 도대체 밝은 결말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밟아 사람을 키워 내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바르게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 시조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고 선악과 금령을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하신 것은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일이다. 돕는 배필을 통해 아담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한다. 사랑을 발견한 것이다. 아담은 아내를 통해, 아내와 함께 사랑을 배웠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내를 통해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듯하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기본적인 품성을 아담은 아내를 통해서 얻기 시작한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이 사랑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간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릴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결혼 전에는 열두 명 아이를 낳아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해 보았지만, 도무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였다. 아이가 늘어나면 주택비에서부터 생활비, 교육비까지 모든 비용을 명수만큼 곱해야 한다. 요즘은 정부가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공공요금에서 대학교 장학금 지원까지 다양화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턱도 없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 가치관이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 가치관, 권위체계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

방식이 이 아이들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10대 아이가 벌써 자기는 이미 정신적으로 다 성장했다고 독립 선언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결과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인 우리도 영생에 참여한다. 그 한 예가 혼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혼인할 때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한다. 주님의 은혜로 이 서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영생의 한 자락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자는 아이를 낳으면 유아세례를 준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그렇게 키운다. 이 언약도 부모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룬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졌 중대한 사명이고 도전이지만, 동시에 이것도 신자가 누리는 영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의 한 선배가 자기 인생의 최대실수는 아이를 낳은 일이었다고 토로하는 말을 들은 일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 자기 세대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자식을 낳아 키우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수이다. 고려대에서 서양철학으로 학위(Ph.D)를 받았다. 최근까지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했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 번역서로는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와 마이클 고헌(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켈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결혼과 출산의 의미

김보경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저출산과 돈

엄마의 오랜 진통 끝에 아기가 첫울음을 울며 세상에 나온다. 대기 중이던 간호사가 버튼을 누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란 노래가 들린다.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송에 부모는 감동을 받는다. 둘째도 같은 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두 번째 듣는 음악에서는 감동이 반으로 줄었다. 아기와 함께 이 산부인대를 나가기 전에 하는 모든 일에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중 산후조리는 상당히 고가이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분리된 채 바구니에 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생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 출생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저출산만큼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한 이슈도 없다. 부동산 문제, 그로 인한 불안정한 주거, 사교육비 문제, 보육시설 부족, 수도권 집중화, 과잉경쟁 시스템 등. 최근에는 방송이나 SNS에서 비혼과 저출산을 부추긴다고도 한다.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가 32.2만 건에서 19.2만 건으로 40%가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도 1.19명에서 0.78명으로 34% 감소했다. 다양한 문제들이 얼

키고 설켜어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보인다.

결혼과 출산의 인식 변화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겠지만,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도 사회 구조와 개인의 인식 두 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층이 결혼을 못하고 자녀를 못 낳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출산 장려를 해왔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의 차원에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주제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루어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이 결혼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청년들도 결혼을 안 하는 또는 못하는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결혼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는 <팀 켈

러, 결혼을 말하다)에서 결혼이 공익을 위한 공적 제도에서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 과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한 공적 의미로서의 결혼관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개인의 로맨스, 개인의 만족감을 위한 사적 의미로서의 결혼관으로 대체되고 있다. 부모나 가족의 기대나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는 책무로서의 결혼이 아닌 나와 잘 맞는 이성을 찾아 나의 부족함과 욕구를 채우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결혼식 풍경에서도 자주 드러나는데, 엄숙한 주례사를 듣고, 신랑이 부모님께 큰절하면 신부가 눈물을 흘리는 애뜻한 모습이 사라지고 각종 결혼사진과 영상, 신랑과 신부의 퍼포먼스가 대신하고 있다.

출산도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가계의 후손을 잇는다는 의미보다 잘 낳고 잘 키우 엄마, 아빠로서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사적 영역이 되었다. 성과를 내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니 좋은 학군의 아파트와 막대한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혼도 출산도 공적 책임의 영역에서 사적인 성과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다수의 가계와 개인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 어떤 행위를 사적 의미에만 묶어둘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적 의미가 커지니 청년들은 그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는 것을 선택한다.

공적 의미 위에 사적 의미 올리기


하나님은 인간을 개인별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국가는 청년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좀 많이 낳기 바라지만, 청년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생존 문제가 더 시급하다. 개인과 공동체의 소명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 사역을 같이 했던 한 전도사님이 손등을 겹쳐 보이며,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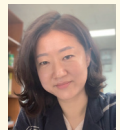
동체라는 종이 위에 개인이라는 반투명 종이를 겹치는 것을 비유하셨다. 나는 이 비유를 발전시켜 포토샵(Photoshop)으로 설명하고 싶다.

포토샵에서는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장의 이미지를 겹쳐 레이어로 작업을 하는데, 각 레이어의 불투명도(opacity)를 설정할 수 있다. 공동체의 소명이라는 배경 위에 개인이라는 레이어를 올려본다. 불투명도 설정은 그림을 작업하는 크리에이터가 설정한다.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50%, 어떤 이는 30%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로 편집하기 위해 수치를 조절한다. 그러나 불투명도를 100%로 설정하여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레이어 작업은 무의미하다. 레이어 없이 한 장으로 그리면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

청년층들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결혼과 출산의 공적 의미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배경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명한 것이 좋을지 지혜롭게 판단하면 좋겠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청년층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적 의미를 인식하고 싶도록 그래서 자신의 레이어를 투명하게 만들고 싶도록 좋은 배경 그림을 그려내는데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산부인과의 서비스 품목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진심어린 축복송으로 느껴지길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보경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학교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이 있다. 현재 대전 산성교회 집사로 부모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초저출산 위기에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은 0.78명으로 집계되었다. 올 2분기엔 0.7명이다. 일시 상승했던 2015년 1.24명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0.59명에 불과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각인된 일본도 2015년 1.45명, 2022년 1.26명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치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던 2017년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는 오욕을 받았다.²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저출산화의 속도와 지속성이다. 일본의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이어진 1975년부터 48년 동안 연평균 1.03% 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부터 39년 동안 연평균 2.46% 하락했다. 일본

보다 2.4배 빠르게 초저출산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법에 근거한 저출산 대비책으로 지출한 정부 예산은 지난 15여 년간 300조 원 규모였다. 그렇지만 초저출산화는 가속화되어 2022년 신생아 수 24만 9000명은 1963년 100만 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인류 첫 부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명령하신 것은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확장성을 선언하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수가 적다고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세계 1, 2위인 노르웨이(9만5천 달러)와 룩셈부르크(9만1천 달러)의 인구는 각각 547만 명과 65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수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건재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 설령 디지털 기계화로 생산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소비력의 저하는 경제순환에 동

1.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2. 국제통화기금(IMF)의 당시 총재였던 라가르드(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맥경화를 유발한다. 199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세계 5위 안에 들었던(2000년에는 2위) 일본이 2022년에는 20위 밖으로 추락했다.³

저출산 추세의 원인은 복잡적이다. 청년층의 치열한 취업 경쟁과 경제적 불안, 결혼 연기 또는 포기,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경력단절, 개인과 가정 생활방식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저출산으로 귀결됐다. 출산 및 육아 휴가 확대, 양육비 지원 증액, 주거지 마련과 각종 공과금 할인 혜택의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고스란히 방증한다.

백약무효인가? 교회도 속수무책인가?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는 구조적 추세를 반전시킬 관점과 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성경의 관점에서 세 가지 '가치'를 재조망해 보자. '생명'과 '가정'과 '공감'이다. 먼저, 천지창조(창 1:1)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대망(계 22:20)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생명'이다. "아이를 낳는다"라기보다는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표현이 생명의 의미를 적확하게 드러낸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생명)가 수평적으로(동시대), 수직적으로(세대 간) 이어짐으로써 확장된다. 따라서 생명의 탄생은 개인과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이지 선택적 판단이 아님을 재확인해야 한다.

3. 사실 1인당 국민총소득만으로 선진국 순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평균치이므로 소득의 불평등도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복지 수준과 물가 수준의 차이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도 감안해야 한다.

생명의 통로와 울타리는 '가정'이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생명의 이어짐이 단절되거나 공격을 받게 된다. 저출산은 '생명'과 '가정'의 가치가 추락한 결과이다. 저출산 대책은 청년층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삶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와 기반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격려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는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삼아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을 강화해야 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모델은 자연스럽게 자녀 출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궁극적으로 '공감'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감을 거부하는 개인주의적 합리주의가 새 생명(출생)과 가정도 거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더 잘 깨닫게 된다.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공감력을 확충한다면 자녀의 존재와 출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단기적 대책이란 신기루에 가깝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는 신앙의 눈으로 저출산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꺼이 구현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파리 제10대학교(남떼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유학 중 파리의 한 한인교회를 계몽시키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2015-17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섬겼고 현재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장로이다.

‘반(反)의 시대’에서 ‘합(合)의 시대’로 나아가기까지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필자는 대학에서 16년 동안 가족복지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업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되었다.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가족의 분야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대 주제인데, 국내에서의 가장 큰 변화로는 결혼율과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찾아온 1인 가구의 증가라 볼 수 있다. 건강가족지원법은 2018년 법 개정을 통해서 가족의 정의에 ‘1인 가구’를 명시하여 1인 가구를 가족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¹ 이미 서구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넘어 다양한 동반자들을 가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 결혼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비친족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을 벗어난 출산을 허용하는 태도 또한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는 2020년대를 살아가며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는 이러한 가족 변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

저출산과 사회복지적 위기의 핵심 주제는 가족의 돌봄 기능과 복지제도 간의 긴장 관계 및 탈가족화와 가족화 간의 긴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족 안

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공적/사적의 책임으로 이양되고 있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된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르신들 돌봄에 국가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정 자격에 이르러 급수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 관련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남은 삶을 유지하게 된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도 확대되어 올해 처음 시행된 부모 급여는 한 자녀당 70만 원씩 모든 자녀 출생시 2년 동안 제공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복지 정책을 통한 부모권과 양육권 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노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가족은 급속히 탈가족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복지정책의 확장이 가족 기능을 축소시키고 결국 가족이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진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가족과 복지제도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참을 더 걸어가야 그 평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이라는 지표는 단지 출산을 높인다는 의미보다는 출산한 자녀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회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 만들기를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즉, 잘 해내기 힘든 세상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정말 한 아이를 잘 키워내는 데 충분한 곳인가?”라는 질문이 출산을 저하라는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출산을 증가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을 외의 많은 사회 지표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 아이가 천부가 부여한 생명으로 와서 환대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지 자성하도록 만든다. 최근 갓 태어난 영아에 대한 살해 및 유기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또한 갈수록 그 잔인함이 드러나고 있다. 아이들은 경쟁 사회에서 좋은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기까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막상 그 이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도 그 질주는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유지된 가족이 과연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같길 이 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1998),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2000)은 제정된 지

20년이 조금 넘어 법과 제도에 의해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이 시작된 지 이제 15년이 되어간다. 이러한 법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가족 내부의 삶 속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희생되던 가족 문제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SNS와 예능 프로그램 등의 진화로 묻어두고 살았던 가족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이 부부, 자녀 양육, 데이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족(이기)주의에 묻어두었던 민낯이 드러남과 동시에 실망과 불안은 커져가게 되고, 어쩌면 변증법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반(反)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통계청의 한 조사를 인용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들에 비해 11%가 넘게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즉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경험이 우리가 해왔던 그림자와 부작용들을 뛰어넘을 때 희망의 방향으로 커브를 돌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합(合)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려야 할 것이며, 기독교 공동체는 양적 확산이 아니라 질적 관심을 가지고 창조 시부터 부여된 가족의 중요성과 본질이 어떻게 구현되도록 할 것인지 인내함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이 긴 여정을 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FAITH & LIFE**

2. 청년층이 “내 가족을 만들고 싶다” 느끼려면? 출처 : SBS 뉴스 (2023.8.29.)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2503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25035&plink=ORI&cooper=NAVER



 글쓴이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부 전공으로 가족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혼가족 등에 관한 연구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왔다.

저출산, 그리고 생명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의학원장)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나라의 출산상황에 대한 용어에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것이 있고, 비슷한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출생률’(crude birth rate)이란 용어가 하나 더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것은 15~49세의 가임 여성이 기준으로서 각 나라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각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대한민국의 0.78부터 니제르의 6.73 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반면에 ‘출생률’, 정확하게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계출산율’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즉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을 토대로 계산하는 수치이고 ‘출생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구수 대비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각국의 ‘출생

률’은 대한민국 5.9명에서부터 니제르의 45.6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2.1’은 특정 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산율로 ‘대체출산율 (replace level fertility)’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로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즉 출산율 0.78은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 미만인 기록이 되었으며, 2022년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70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의 원인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은 극복이 가능한가? 필자는 저출산 문제가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 스웨

덴, 영국 같은 국가에서 저출산을 극복한 예들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책이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책이 있어도 사각지대나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원인과 대책들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미시적인 측면, 그중에서도 출산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측면 중, 자연유산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조서기간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9만 1,600여 명이 자연유산을 했다. 같은 기간 분만 여성은 평균 26만 2,700명으로,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자연유산을 겪은 셈이다.

저출산으로 임신 자체가 줄면서 유산 인원 역시 감소했으나, 고령 임신 증가 등에 따라 자연유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4.32%로 늘었다.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산 위험 역시 증가한 것이다. 어떠한 임신의 경우에도 자연유산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의 상황이 임신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연유산을 직장 가입자와 비직장 가입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직장 가입자가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았다. 직장 여성이 자연유산 고위험군 되는 경우, 안정을 취하기 쉽게 임신 중 휴직에 관한 지원의 확대 등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박사의 말처럼 어떤 시대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그 시대가 생명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미 생명으로 자리 잡은 임신에 대한 보호와 생명 자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회복이 중요해 보인다. 많은 저출산 연구에서 가치관, 즉 ‘사람들의 생각’이 임신과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책과 함께, 그 사람의 중심,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저출산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의학원장이다. 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넘어

김반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인구학에서는 인구의 변동을 출생, 이주, 사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설명한다. 이 중 사망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데 비해, 출산 및 혼인과 이주는 개인의 생애사에 걸친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구 사건'(population 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인구정책은 출생과 이주를 주된 개입과 통치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들을 촉진 혹은 통제하여 적정한 인구 수를 확보하고자 한다.¹

그런데 혼인과 출산, 이주는 단순히 현재의 삶의 조건이나 가치관의 문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떠한 생애를 전망하느냐의 차원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² 결혼과 출산의 경우, 개인의 커리어, 양육과 교육, 주거, 노후 등의 전망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또한 이주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연결되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의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의 트렌드는 결국 개인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의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전망하며,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볼 때, 저출산의 트렌드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하나의 악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다. 고등교육기관과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 청년들은 출신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판단 아래, 높은 주거비와 취업 경쟁을 무릅쓰고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청년들은 주거비와 양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이후의 불투명한 전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 결혼과 출산으로 취업 전선을 이탈하면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육 환경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만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경력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리스크로 가득한 미래 앞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유보하고,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한국의 저출산 트렌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극단적인 불균형의 상황 때문이다. 옆 나라 일본은 지방소멸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나라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도쿄, 칸사이, 나

1. 이성용, 2022, <통치와 생존의 인구학: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해남.
2. 이상림 외, 2022,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야의 삼대 대도시권과 각 권역별 거점도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집적과 경쟁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대학교육을 마친 후 자신의 고향이나 고향과 가까운 거점도시로 이주하려는 ‘지모토(地元, 고향) 지향’이 관찰되기도 한다.³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도권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안정적인 경력을 위한 선택지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압박에 직접적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 소멸과 수도권에 과밀화로 인한 저출산 트렌드의 심화라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단순히 출산에 대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인구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고 미래의 삶과 커리어를 그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출산과 양육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선택 결혼과 출산, 육아를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과 이후의 경력과 삶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닦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닌 삶의 한 선택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가 되도록 출산과 양육 환경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3. 박지환, 2023, “일본 지방청년의 진로선택시 성별에 따른 지역간 이동의 차이”, <일본비평> 15(2).

지방소멸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 인구대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귀농귀촌 정책은 어떻게든 젊은 청년들, 특히 젊은 부부와 ‘가임기’ 여성들을 이주시켜서, 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인구 재생산력을 확보하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일회적인 프로젝트나 불안정한 일자리 사업을 남발하면서, 청년들을 일단 유입시키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가 관찰해 온 바, 지방에 이주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직접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삶의 모습을 설계하며 삶의 터를 꾸려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주하는 청년들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적은 수의 청년들이 유입되더라도 이들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생활문화와 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수치에 압도되어 출산을 자체를 제고하려는 단기적인 처방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재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인구위기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러한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달라진 인구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지방 이주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지방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높은뜻오차노미즈교회에서 유치부와 통역부를 섬기고 있다. 2022년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하여

양승헌 (세대로교회 담임목사, 파이디온선교회 설립자)



인터뷰어 : 서나영(충신대 기독교 예술학 객원교수)
 일시 & 장소 : 2023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세대로교회 접견실
 사진 & 정리 :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78로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다음 세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정작 이제 더 급한 것은 구성원 자체의 소멸로 인한 존립의 위기일지 모른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 전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함께 주목하고 극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핵심 과제다. 따라서 이번 호 ‘사람 사이’는 어린이 사역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양승헌 목사님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 극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며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그 해안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서나영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 선교와 교육에 헌신해 오신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우선 그동안 섬겨오신 대표적 사역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승헌 1972년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어린이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1975년 ‘파이디온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일학교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도 아니고 교육학적으로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2002년 유학을 마치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영적 생태 환경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다섯 분의 초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세대로교회’를 세우고 현재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서나영 목사님께서서는 최근 교회 학교 인원의 급속한 감소가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지는 ‘절손’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 이전에 다음 세대라는 선교 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말씀인지요?

양승헌 그렇게 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위기를 넘어,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9%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 교회가 69.23%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대부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교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교단은 아예 공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가 끊어지는 ‘절손’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나영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와 관련한 초점은 교육보다 선교이어야 하고, 한국교회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보다 가정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양승헌 첫째는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초점이 양육보다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 부흥을 위한 차원에서 보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어떤 경우 아이 하나를 잘 정착시키면 부모 등 가족 따라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동기가 아니지요. 아이들은 소리 없이 땅에 오지만 우리의 정치, 역사, 재정, 자리, 특권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이들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너무 좁혀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에게 “북한에도 이란에도 코카콜라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여전히 천문학적 광고비를 쓰는가?”라고 물었을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코카콜라를 모른다”라고 했지요. 저는 바로 그 말이 선교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보다 가정에서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자라갈 일번지 양육 기관입니다. 1780년 레이크스(Robert Raikes)가 교회 주일학교를 만들기 전까지 신앙 양육의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원리로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인 것이 맞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기회의 상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역할이 왜곡되었지요.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 양육 기능을 교회에다가 위탁하고는 뒷집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의 역할이 자식의 현세적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모두인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부모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을 맡도록 돌려주어

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나영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체감하고 계신지요?

양승헌 저는 이 위기를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서 생생히 체감합니다. 교회 재적이 천 명 정도인데요. 우리 교회는 본래 아이들이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면 부모들도 영적으로 충전이 되었고, 학령전 부서도 태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드림스쿨 등 5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제 손가락 숫자 안의 작은 수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네요. 그것만 보아도 인구절벽의 위기를 체감할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강단 위로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강단 위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배가 기울듯이 초등부 아이들 쪽이 더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나영 많은 목회자에게 저출산 문제 관련 의식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승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은 단순히 안 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비혼주의와 만혼의 풍조가 있습니다. 저는 25세에 결혼했고 20대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 “꼭 결혼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싱글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결혼했다 해도 출산을 포기하고, 아기 대신 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데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생존 자체의 위협 때문에 이것을 핵심 문제로 가르치고

강조할 용기와 여력이 없습니다. 큰 교회는 출산율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덜 절박한 현실로 느끼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저수지가 변방부터 말라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수지의 깊은 중심부에는 물도 여전히 많고 고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절벽 문제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분명 한국교회의 일차적 관심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이 없어지니까요.

서나영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해진 것은 혹시 국가 또는 사회 정책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책임이 일정 부분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승헌 우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그 원인이 국가의 정책 실패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9남매 중에 일곱 번째인데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창피하고 싫었던 게 형제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저 뿐 아니라 아버지를 비웃는 듯 했어요.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애국자예요. 국가적인 지나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이제는 출산 관련 예산을 280조씩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계산을 내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입시가 버티고 있는 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감당할 뭇은 오롯이 부모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혼자 벌어서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육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된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한편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다 국가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범과 기준과 모범을 세상 사람들에게

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제자를 키우지도 못했고 살도록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결혼과 출산과 자녀 양육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세상에 충만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싫고 내 쾌락과 편리를 포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서나영 많은 한국교회가 오랜 기간 성경적 삶을 살도록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계 조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출산율, 결혼율, 이혼율, 가치관 등이 비그리스도인과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승헌 교육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의 제자 훈련은 지역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교인을 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전하고 보여줄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잘 훈련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교회 교육은 예수님 제자로서의 의식화와 내면화까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점이 근본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서나영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그 수와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 극복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지성인의 역할로서 어떤 실천 방안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양승헌 저는 세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출산을 보고 자녀 양육을 보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바른 말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원입니다. 저는 교회가 출산을 지원할 힘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공간이 있고요, 섬길 수 있는 노인층 유희 인력도 있어요. 아기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하면서 세상에 없는 사랑을 아기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요. 셋째, 문화입니다. 저출산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같은 곳이 이러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글도 계속 쓰고, 기자회견도 하고, 어떤 것을 법제화할 때 의견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바른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제도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끊임없는 도전과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지성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서니영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와 교육의 핵심 주제가 가정과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해 오셨는데요. 한국교회는 이제 저출산 문제에 관한 성경적 가정 세움과 부모의 거룩한 소명을 안내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요?

양승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저출산 상황을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건한 후손들로 세상을 채울 적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말씀을 용기 내어서 좀 전해야 하는데요. 요즘 조부모나 목사님들은 그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결의해서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선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민족의 족장으

로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그렇게 세지 않아요. 한 민족, 두 민족 그렇게 세요.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 속에 한 세상이 있음을 알 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출산과 양육의 행복과 축복을 잘 보여주는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때부터 강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기 낳기를 주저할 때 경건한 후손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기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한 가정에 아기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기를 갖게 된 부부들을 위한 태교학교와 건강한 태아발육과 출산을 위한 기도, 크리스마스 축제 때 출산장려금 격려 등으로 아기를 갖는 일의 가치와 축복을 반복하여 가르쳐줍니다. 일종의 문화 조성 작업이지요.

서니영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향한 응원이나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삭 할아버지를 낳아 언약 백성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이삭 할아버지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일도, 야곱 할아버지의 가장 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

박해일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 9:17)

이 말씀에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과 유연한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지난 삶은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유연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삶이었다. 나에게 시련이 여러 차례 왔는데 그때마다 시련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아픈 과거(트라우마)를 주님 앞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려고 노력하였다. 1년간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재수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고등학교 시절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여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서도 지도교수와 잘 안 맞는 바람에 5년간 지속해 왔던 박사과정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 상황에서도 나는 과거의 잘못을 확실하게 정리하며 지도교수 탓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적이 찾아 왔다.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손을 잡아준 분은 연세대 의과대 교수로 있는 친형 박해정 교수였다. 뇌 과학을 전공하는 형이 ‘기능적 자기공명영

상’(fMRI)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언어학을 뇌 과학과 접목하여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였다. 예일대에서 <언어와 사고>라는 제목의 수업을 들을 때 fMRI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언어 기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뒤 막연하게 그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꿈이 기적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새포도주를 새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한 말씀이 전통과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 겸손하고 유연한 마인드를 의미한다고 볼 때, 내가 7년간 공부해온 순수이론 언어학 분야를 고집하지 않고 신경언어학이라고 하는 최신 분야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돌이켜 보건데 탁월한 선택이었다. fMRI라는 최첨단 기법을 활용하여 언어가 뇌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처리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풍부한 연구의 광맥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세대 뇌 과학 연구소에서 1년간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미국 밀워키 소재의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박사과정에 다시 입학하여 보통 5년 이상 걸린다는 박사학위를 2년 반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 학교에서 예일대학교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인자하고 다정다감하신 지도교수를 만나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post doc 과정을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짧게 끝낸 뒤 귀국하여 강사 생활을 1년 반 정도 한 뒤에 명지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 그곳에서 5년 반 정도 강의와 상담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 있어서 경희대학교로 학교를 옮겨 교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서도 가급적 상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경희대 기독교수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연치 않게 명지대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눴던 김태황 현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님의 권유로 <신앙과 학문> 편집장 일을 맡게 되었다. 다른 학회 편집장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두 학술지의 편집장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미 있는 일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기로 하였다. 맡고 보니 전공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을 유연하게 접목하여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들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다른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전공 분야에 투영시키는 논문들을 <신앙과 학문> 저널에 많이 투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시대가 요청하는 학술지다운 학술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언젠가 어떤 철학전공 교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철학적 물리주의(유물론) 관점이 지배적인 뇌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유물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의 기저에는 인간 및 뇌에 환원되지 않는 비물질적, 비환원적 속성들이 없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정말로 뇌 기능에는 환원되지 않는 비물질적 속성은 없는 것일까? 하지만 최근의 시스템 뇌과학이나 정보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뇌 신경을 구성하는 연결 구조와 뇌 신경이 처리하는 정보는 물리적 환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뇌는

물리적 속성을 가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특한 연결 구조 형태로 정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비물질적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자인 J.B.S. 홀데인도 인정하였듯이 “내 정신 과정이 전적으로 내 뇌의 원자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면 내 신념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내 뇌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물질과 구분되고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무엇’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없다면 존재도 인식도 과학 자체도 불가능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이 유물론적 물리주의 세계관보다 폭넓고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리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고유성, 개체성, 개인이 가지는 경험들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뇌의 물질적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우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 얻는 지식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합리성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마음에 두신 생물학적 계획의 결과물이며 영혼과 구분되는 실체이다. 이처럼 인공지능(AI)과 뇌 공학, 가상현실 등의 대전환과 탈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계를 정확히 알고,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탁월하며 현재 세계와 미래 세계에 변치 않는 유일한 대안임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박해일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석사,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신경언어학, 음성음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언어학자로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함께 미개척분야인 뇌과학 영역에 대한 통섭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거룩한 가정, 상속받는 믿음

조나은 (성균관대학교 교육철학 석사과정)



내가 유치등학생을 만나는 교육 현장에 있었을 때, 내가 어린 친구들에게서도 가정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태도를 봤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아파트 이름은 뭐야?”, “아빠 차 이름이 뭐야?”라는 식의 질문이 자주 등장하였고, 질문 속에서 나이를 막론하고 오늘날 자녀세대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녀세대의 태도는 오늘날 가정의 최고 가치가 ‘자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생활력과 직결된 노동의 시간으로 인해 다른 일들이 모두 차선으로 밀려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가정에 물질주의가 만연해진 것이다.

저출산 문제 역시 물질주의와 직결되어있는 사회 문제로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치, 자녀에게 쓰이는 재산 등을 걸림돌로 여기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있으며,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 입장은 자녀의 존재 이유가 물질에 의해 소멸되어 버렸다는 점, 생명의 가치가 차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나 역시 결혼과 출산의 적령기에 접어든 이슈의 당사자로서 이 시대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혼 전부터 염려와 근심을 갖

게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실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지면을 통해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가치를 나누고 싶다.

나는 엄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나의 엄마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청년 때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분이다. 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엄마는 언제나 가정에서의 예배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였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구약, 신약의 글자를 가르치며 교육을 하였고, 어린 딸들을 데리고 매일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는 찬송가와 같이 나의 믿음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믿음을 가진 나는 금수저에 견줄 수 없는 삶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모태로부터 믿음이 깃든 삶을 주신 것은 어떤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일 것이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만 미처 모르는 비밀일 뿐 명백히 존재하는 자명한 진리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

모, 혹은 영적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았으니 더 바랄 나위가 없어야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의 첫째 가치는 자본이 아닌 믿음의 상속이다. 자본이 주는 생명력은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언젠가 소멸하지만, 생명의 원천인 믿음은 마르지 않는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자녀의 믿음은 계속해서 생명을 만들며 그 자녀를 축복으로 이끈다.

믿음이 본격적으로 자라난 것은 고등학생 때였다. 당시 나는 대학 입시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도를 결심했었다. 학교에서 사람이 가장 없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찬양을 들으며 30분씩 기도했다. 그동안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창피해 사실을 숨겼지만 돌아보면 나의 믿음이 변화한 아름다운 장소였기에 이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심과 실행은 내 청소년기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어서 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신 은혜였다. 그리고 매일 나를 위해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 응답이었다.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며 놀고, 자고, 보채며 기다리던 아이가 장성하여서 배운 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부모를 통해 자녀의 길을 예비하시고, 자녀의 믿음을 통해 부모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미래의 삶에서 출산과 양육, 교육과 관련된 일도 필연적 초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믿는 자들이 믿음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결혼 준비의 과정이고, 가정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역시 결혼 준비를 시작

하게 되면서부터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 결혼 이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주목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다.

청년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 믿음을 물려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 교육하고 양육할 사명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대학원에 들어왔다. 현재 교육철학을 공부하며 학문을 통해 시대적 사상들을 배우고 있다. 시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오늘날 시대가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보는지, 기독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다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이 내게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더욱 지혜로운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는 준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내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세대 한 사람, 한 가정이 거룩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배우는 자들에게 공훈을 베푸실 이유가 이 땅에 가득히 준비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그 은혜가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죄와 씨름하며 시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조나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이다. 2017년부터 6년간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였다. 현재 성균관대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다.

창조주와 죄인, 그리고 사랑

박은찬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다. 나에게 하나님은 많은 모태신앙 출신자들처럼 참으로 익숙했지만, 한동안 그저 하나의 개념으로만 존재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개념만으로 존재하시던 주님께서 중학생 시절 다녀온 선교여행을 했을 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주셨다. “은찬아,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고등학생 때는 부모님을 떠나 기숙학교로 입학하게 되었다. 집을 떠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웠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내내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거나, 그마저도 안 했던 경우도 많았다. 이런 양상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나는 주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던 덕분에 다행히 주님을 부정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나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시절에도 나를 최대한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주셨나 싶기도 하다.

시간이 또 흘러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입대를 했다. 사실 나는 주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 등을 근거 삼아 자신을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일종의 선민의

식이 있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나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동료 전우와의 차이점은 오로지 군번밖에 없었다. 전쟁터에서 누가 죽든 국방부의 사상자 통계는 똑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에 나는 무력감을 느꼈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자신이 아닌 일종의 수식어에 불과했고, 내 육신도 매 순간 세포가 죽고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달라지기에 존재를 증명하기엔 불충분했다. 사진이나 컴퓨터의 메모리 장치가 나에게 대해서는 더 잘 기록하고 있어 내 기억 역시 내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여겨졌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증거가 불가능했다. 나는 분명 버젓이 살아 숨 쉬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었고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기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부모님의 아이이라는 상대적인 정의로 존재했고, 이런 방식으로 대를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셨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주님 없이는 세상에 아



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만물의 주재', '절대자', '창조주' 등 단어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내가 그분의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영원하고 존귀한 분이셨다. 그러한 분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호의를 보이시고 나를 중을 뛰어넘는 아들로 삼으려고 하시는 그 행동이 그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였다.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즉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어느새 그런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경험과 깨달음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우월감에 빠져 거만하게 행동을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거울삼아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거울 너머에는 흉측하고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서 있었다. 죄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주님을 배신한 내가 서 있었다. 나는 비로소 자신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돌을 든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간음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성경의 사랑은 평범한 중산층 사람이 재벌을 만나 팔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의 사랑은 절대적인, 만물의 주재이신 주님께서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아들과 딸로 삼으시려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희생과 용서를 반복하는 이야기이다. 죄인인 나에게 진노를 쏟아 심판으로 정의를 실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이다.

나는 성경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이고 죄인이다.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지만, 매 순간 죄를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절망한다.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주님께 빛진 자이다. 비록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죄인이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갈망한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분명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없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나의 미미한 노력조차 귀하게 여시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은찬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포함에 소재한 한동고등학교(HIS),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연구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이며 카이스트 교회를 섬기고 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일터

백유미 (녹십자 목암연구소 연구원)



현재 나는 녹십자 목암연구소에서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다. 학부시절 화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는 시스템 생물학을 전공하였다. 시스템 생물학은 생물학적인 현상을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고 통찰하는 분야로, 세포 내의 대사과정이나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고 개체의 표현형이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유전자 또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유의미한 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찾아 약물 타겟으로 선정하고 약물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임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일은 소명이기에 내가 살아가고 일하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대학 시절 몸이 많이 아파 휴학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화학과 시스템 생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신약개발 분야로 연결되게 하셨다. 그리

고 심도 있게 배우고 싶었던 인공지능(AI)과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에 대한 분야를 연구소에서 배우고 연구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관심사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며 인도해 주셨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아픈 자들을 돕고 싶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셨다.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빛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구하며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잊지 않고 나의 소명으로 기억하며 지내고 있다.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만나게 된 믿음의 동역자들은 큰 위로가 되었고, 서로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었다. 교회 정착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여러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며 큰 힘이 되었고, 신앙과 인생 고민 등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일터에서도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함께하

며 큰 힘이 되어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 또한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구적으로 든든한 동료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내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동료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 항상 주께 하듯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다.

항상 연구하고 일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때로는 연구 과정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새롭게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 주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새롭게 배우는 연구분야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지 기도하며 버티었다. 하나님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겸손히 배우길 원하셨다. 손쉽게 배우기 보다는 견디면서 묵묵히 배우길 원하셨고, 내 뜻대로 되고 인정받기보다는 겸손히 배우며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원하셨다. 나보다 먼저 이 길은 간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는 것을 통해 내가 더욱 겸허해지고 성장하기 원하셨다. 때론 오해도 받고,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 하라고 때가 되면 쓰신다고 하시며 나를 잠잠히 인도하셨고,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셨다. 나의 조급함을 아시고 천천히 그리고 잠잠히 나를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셨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나를 묵묵히 안으신다. 선하신 하나님

을 믿으며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하려고 애쓰고 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계속할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느리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진정으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길 바라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목자이시다. 시편 23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마주할 인생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와 함께 맡겨진 소명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백유미

녹십자 목암연구소 신약개발팀 연구원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거쳐 화학교육과 학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인지공학과'에서 시스템 생물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학부 시절 서울대 JOY 선교회 학생대표로 섬겼고, 대학원 시절 카이스트 기독교세계관 동아리 '렉스'(RACS)에서 활동했다.

그들이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행 2:1)

오유리 (카이스트 행정직원)

“Quo Vadis, Domine!”(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요, 요 13:36). 로스쿨 입시에 낙방하여 상심한 마음으로 충분한 기도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도망치듯 혈혈 단신(孑孓單身)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 그래도 나는 이것이 주님이 뜻이겠거니 생각하였다.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고 공부보다 조교 일과 학회 근무 시간이 더 길어져 나와 모두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매일 밤 떨며 기도하였다. 매주 본가에 내려가 주일성수는 했으나, 근심과 잘못이 가득하여 삶 전체를 예뻐로 바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고 대전에 취업하여 다시 내려왔을 때 나는 시몬 베드로처럼 울고 싶었다. 우는 자 옆에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옆에서 주님의 사랑에 잠겨 함께 기뻐하는 것(롬 12:15)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나에게서는 참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도 주님 가시는 길, 오라 하시는 곳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이 흑암에 가려져 있는 듯하였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지 못하고 로스쿨 입시와 대학원 공부 등을 전전했던 나는 직장생활이 쉽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에 적었던, 남을 돕

고 함께 하고자 하는 소명은 이미 흐릿해질 정도로 일과 삶에서조차 잘 감당하기 어려웠다. 회사에서는 내가 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나 번역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겼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를 보고하고, 기안하고, 외부업체와 접촉하는 프로세스들에 익숙지 않아 실수를 연발하였다. 항상 팀원들에게는 더 감사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일했지만, 나도 모르게 짜증이 섞이거나 불성실해질 때는 나의 죄성이 미웠고 오로지 주일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의 일상과 교회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목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고 목사님은 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로 축복하여 주셨다. 나는 가까운 대전에서 교회를 찾던 중 우연한 계기로,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한 목사님을 뵈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대전 도안동의 디딤돌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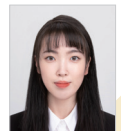
디딤돌교회는 청년의 수가 적잖기에 목장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며 일과 영성을 나눌 수 있었다. 큰 교회에 와서 처음 목장 예배를 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큰 기대가 없었다. 사실 퇴근 후에 만



남을 가진다는 것도 심적 부담이 되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 또래끼리 노는 것 같았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시간이 없다고 느껴져서 목자 언니에게 투정도 부렸다. 다만 어느 주일, 목자 헌신예배에서 목장에서 서로 떡을 떼며(행 2:42) 각 역할을 맡아 지체의 역할을 해보라고 하신 목사님의 권면이 왠지 마음에 닿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반년 동안 매일의 출근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이 되는 구절과 목원들을 향한 기도를 보내게 되었다.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보면, 목장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내 소명을 돌이켜보며 낙심치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실족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설령 실족하는 날에도 우리 목장 예배에 나아가 울고 웃으며 하나님과 우리 목원들에게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 점검할 수 있었다. 한편, 내가 처음 목장에 편입될 때는 잘 모르는 사이였던 우리 목원들을 향해 매일 기도하고, 또 가끔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느꼈다.

하나님은 교회 밖 세상이라는 선교지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다고 믿는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동료 선생님을 만나, 퇴사 후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스터디 모임으로 교류하며 같은 시험 준비를 천천히 성실하게 함께하고 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가깝고 먼 곳에 계셔서 늘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더욱 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나누었던 말과 행동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서로 천국에서 영원히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가가고 싶다. 최근 나는 항상 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성경이나 책을 읽고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기도를 한다. 그기도 제목은 직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한 자료 행할 수 있고 또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디서건 누구든지 나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냐고 묻는다면 공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는 선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복음을 천천히 한 걸음씩 말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기다린다.(벧전 3:15).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놀랍고 기쁘는지! 나는 그 무한한 기쁨을 알기에 많은 이들과 더 함께하고 싶다. FAITH & LIFE



✍ 글쓴이 오유리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카이스트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있다. 약한 자와 함께 울며 기도하고 기쁜 자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현재 대전 도안동 디딤돌교회 청년으로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미래 디스토피아, 사랑과 생명이 희망이다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인간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언제서부터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으며, 왜 세상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아름다운 세상'은 의심할 여지 없는 당연한 진실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자연(Nature)으로서의 세상이던지, 사회(Society)로서의 세상이던지 이것은 인류에게는 자연스러운 실존의 명제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존재의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던가? 자연으로서의 세상은 인간과 관계없이 과거에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답다. 하지만 사회로서의 세상은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아름답지 못한 면이 많았다. 현재는 어떨까? 자연으로서의 세상 곳곳에 오염 요소가 확산 중이며, 자연은 그야말로 신음하고 있다. 사회로서의 세상은 상태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유토피아를 꿈꾸어 온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서 지구열대화(Climatic Boiling)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인간의 존재 때문이라는 자성은 정당한 면이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류세(Anthropocene)가 가져온 비극이라 하겠다. 인간 세상은 유토피아적 희망에서 점점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닌가.

인류 멸종에서 구원으로

알폰소 쿠아론(Alfonso Cuarón) 감독의 <칠드런 오브



영화 <칠드런 오브 맨>(알폰소 쿠아론 감독, 2006)

맨)(Children of Men, 2006)은 지구촌이 디스토피아로 들어가는 종말의 암울한 분위기를 그린다. 가상의 시간 2027년도, 18년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지구촌은 불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고 있다. 18년 전에 태어나 기적의 아이로 불리던 소년마저 죽임을 당하는 무법천지로 세상은 변해간다. 곳곳에서 불법과 테러가 벌어지고, 정부군은 이를 저지한다며 무차별 폭행과 살상을 가한다. 더구나 생존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피난 가면서 각국은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나마 영국은 사정이 좀 낫다는 설정이다.

주인공 테오는 아내와 헤어지고 생의 기쁨을 잃고 그저 생계를 위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 갑자기 나타난 아내. 그녀는 이주민대책 게릴라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 남편 테오에게 '키'라는 여인을 인간 프로젝트 팀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줄 것을 부탁한다. 인류가 전면적인 불임 사태를 맞고 있어, 인류 멸종은 언젠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인간 프로젝트 작전은 지구상에 다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게 한다는 인류를 위한 생존작

전이였다.

하지만 곳곳에 게릴라들이 위협하고 정부군은 질서를 명분으로 과격한 통제를 하였다. 도시를 빠져나가 해안가에서 인류 프로젝트팀을 만나는 일은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테오의 헌신적 보살핌으로 임신한 여인 키는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낳는다. 여아였다. 18년 동안 생명의 탄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으로 받아들인다. 난민보호 작전을 펼치는 게릴라들도 전투를 멈추고, 이들을 소탕하던 정부군들도 공격을 중단한다. 그들은 모두 경이로운 새 생명의 등장에 경건한 태도를 취한다. 테오는 키와 아이를 해변까지 인도한다. 하지만 테오가 피를 흘린다. 총상을 입고 만 것이다. 테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중 희미한 안개 속에서 인간 프로젝트팀이 나타난다. '미래호'(Tomorrow)가 키와 아이를 구출한다.

사랑과 생명이 희망이다

테오는 아내와 사이에 사랑스런 자녀를 얻었다. 선천적으로 폐가 약했던 아이는 지구촌에 밀어닥친 팬데믹으로 생명을 잃었다. 그 후 테오는 낙망 가운데 살아갔다. 사회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던 그가 인류의 멸종을 막게 되는 인간 프로젝트에 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8년 만에 처음 탄생한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생명을 바쳤다. 불임(不妊)은 곧 인류 멸종이며 이는 지구촌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되다니. 테오는 전적으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테오를 돕는 사람들 모두 믿음으로 행동하고 때로 목숨을 바친다. 아기의 탄생이 곧 인류의 희망이다. 인간이 잉태하지 못하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임신과 출산으로 세대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시대정신(Zeitgeist)은 이를 부정한다. 이러한 비인간화 되어가는 시대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 멸종이라는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생명'을 '생명'을 다해 보호하며 헌신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생명의 이어짐이 희망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디스토피아에서 구원으로

가상의 설정, '영국 2027년'은 예견되는 종말 상황의 한 알레고리이다. 방사능이나 환경 오염 등으로 불임이 가속화되어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아름다운 지구촌, 유토피아를 꿈꾸던 세상은 서서히 디스토피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생명 탄생이 멈춘 세상이라면 희망도 꿈도 없어질 것이다. 다음 세대(Next Generation)는 그만큼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의 가치와 목표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상태는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이며, 서방 선진국가들보다 낮은 수치다. 이대로 간다면 백여 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여러 부문에서 국가 존립의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인간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돌입하기 전에, 온 백성이 함께 '사랑과 생명'으로 국가적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복음 안에 사랑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희망이 아니겠는가!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권력과 신앙: 허틀러 정권과 기독교>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정의 축복과 공동체의 번영 - 저출산에 관한 단상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그날도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 화랑가로 향하던 참이었다. 5호선 오목교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한눈을 팔다가 우연히 서울시의 시정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가 주관한 '아빠 엄마 행복 프로젝트'에 입상된 사진 작품을 본 순간 '진동' 같은 것이 내 몸에서 일어났다.

'아빠 엄마 행복 프로젝트' 입상작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부모와의 동행 장면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 장면은 너무 익숙해 새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입선작 중의 한 점 <첫 만남>과 마주친 순간 나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와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에서 어떤 미묘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 게시판에 '아빠엄마 행복프로젝트' 입상작 인쇄물이 걸려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순간, 곧 작고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35년 전의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떠올랐다. 물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보다는 벅찬 감정이 먼저였다. 아이에게서 받은 것이 준 것에 못지않게 컸다. 아이

가 커가는 모습과 성장 과정에서 느낀 기쁨과 경이 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만일 아이를 갖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아이가 없었더라도 우리 부부는 두 마리 노견과 함께 그러저럭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생의 의미를 체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없었던 어떤 힘에 사로잡힌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부모에게는 제2의 천성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러한 천성을 발휘했는지는 자신이 없지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정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주위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존재로 내면의 중심적인 부분을 바꾸게 된 것은 값진 소득이다. 저출산에 대한 경고음이 꾸준히 들려온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그 여파는 대학까지 확산하여 많은 학교가 심각한 구조조정을 넘어 존폐 위기까지 치닫는 실정이다. 항간에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습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능사일까? 이 문제는 마땅히 성경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출산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간주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 이루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시 128:3).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배우며 완성해 가는 공동체이다. 가족의 번영이 전제될 때 공동체의 번영도 상상할 수 있다.



신홍우-콘서트(혼합재료) 116.8 x 91cm, 2017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 속의 군상을 그려온 서양화가 신홍우의 작품이 떠올랐다. 신홍우의 작품에서 도시는 때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따듯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묘사된다. 작가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꿈꾼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며 다른 모습과 동작을 취한다. 그들은 힘을 합쳐 <콘서트>를 공연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연주는 사람들을 복돋아 주고 활력이 넘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등 공공선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벽안(碧眼)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국운을 다한 나라에 복음의 빛과 함께 발전된 문화를 선사하셨고,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러한 눈부신

도약을 비웃는 듯하다. 현실의 짐을 감당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가지는 일을 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진미정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의 하나로 경제적인 불안, 곧 결혼식에서부터 자녀 출산과 양육, 교육 등 거의 모든 단계마다 요구되는 ‘표준화된 모범답안’을 든다. 결혼은 멋진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알만한 휴양지로 떠나야 하며, 유모차는 어느 브랜드, 육아를 위해선 최소 20평대 아파트는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여기에 학군 좋은 지역은 필수조건이다. 결혼 기피 현상의 배후를 파보면 행복을 물질화하는 세대가 도사리고 있다.

물론 그런 문화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 풍조의 상당 부분은 기성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들 앞에 높은 현실의 벽을 쌓은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평생 저축해도 사지 못할 만큼 고가의 아파트 가격, 젊은이들을 좌절시킨 책임은 온전히 기성세대에게 돌아간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워졌으니 면목이 없다. 공동체의 번영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다. 모쪼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쓰임 받는 그릇이요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는 풍요의 땅이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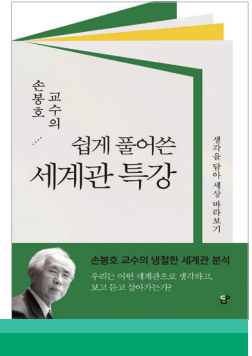


글쓰는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세계관 특강 :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선지자적 비관주의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 / 손봉호 지음 / CUP / 2023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의 저자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땅에 기독교 세계관을 최초로 소개한 분이다. 우리 시대에 저자만큼 그리스도인 지성으로서 영성과 지성, 신앙과 학문이 이원화되지 않은 정체성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전방위적으로 시민사회에 족적을 남긴 사람은 드물다. 그는 평생 기독교 복음주의(예장 고신) 교회에서 자라고 섬겨왔을 뿐 아니라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세계밀알협회, 기아대책, 남북나눔운동,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핵심 리더로 활동한 시민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전체 13장의 구성을 통해서 왜 세계관이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이며, 각자 삶 속에서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책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선지자적 비관주의’, 즉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패한 사회에 대한 개혁과 변혁을 지속 하되,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면적으로 하나님 나라

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308면). 우리가 이 책의 가치와 의미를 가감 없이 소개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강조한 로고스(Logos),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라는 설득의 세 측면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첫째는 ‘로고스’ 측면이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메시지를 어느 책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아마도 저자가 반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대학교수이자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이기에 논거를 역사적, 객관적 사실과 성경에 근거해서 탁월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 개념’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과 가치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세계관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18세기 철학자 칸트, 19세기 짐멜, 리케르트, 딜타이 등 철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론적 논의에 등장한다. 기독교계에서는 네덜란드 기독교 철학자 도여베르트가 세계관을 언급했지만, 신학에서는 별로 잘 알려진 개념이 아니다. 세계관이란 문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16면).

“첫째,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어떤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듣고 있는가, 둘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무엇이 세계관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신다. 기독교 신앙의 표준인 성경은 우리 삶 전체를 일관성 있게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요구하신다.”(31면).

둘째는 ‘에토스’ 측면이다. 이 책의 가장 탁월한 강점은 저자의 신뢰성에 있다. 우리는 어떤 책이든 수려한 표현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저자의 삶이 내용에 상응하는 신뢰성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전달력은 기대하는 목적에 이르기 어렵다. 책의 내용과 저자의 삶 사이의 괴리는 그 배신감과 거부감을 치명적으로 자극한다. 그러나 저자의 글들은 이 에토스 측면이 오히려 최대 강점이다. 많은 이들은 2022년 저자가 장애인 권익 기금 조성을 위해 유산 13억 원을 ‘밀알복지법인’에 기부한 일을 기억한다. 신앙과 삶의 에토스적 단면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우리는 저자가 80대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필자 역시 캠퍼스에서 다수 청년으로부터 저자의 메시지는 세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본질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접한다.

셋째는 ‘파토스’ 측면이다. 저자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우리 시대의 나그네, 고아, 과부, 즉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를 향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도 그 영혼들의 치유와 목마름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고 특별히 그것에 함께 공명하는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약자라는 것이 심각한 문

제다. 약자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이 아니다. 성적, 사회적, 정치적, 인종적, 지역적 약자들도 있다.”(217면)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우선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305면).

〈쉽게 풀어서 세계관 특강〉은 기독교 세계관이 왜 다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각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인가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 세계관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개념이나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최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과 화두를 역사적 맥락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책 제목이나 강연 내용으로 채워 그 근본 목적과 방향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결코 이데올로기 또는 정파적 입장의 방패막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265면). “비록 어렵지만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고, 의무이다.”(311면). 필자는 요즘 대학 캠퍼스 독서 모임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매주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측면이 모두 갖추어진 저자의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메시지에 직면하고 공감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침신대 조직신학 겸임교수이다. 지난 28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문화 복음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 〈그림책의 세계관〉 읽기

지상선 (성균관대학교 청소년아동학과 겸임교수)



〈그림책의 세계관〉 / 현은자 지음 / CUP / 2023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수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짓 문화 이야기 속에서 문화 크리에이터로서 문화 복음으로 세계관 읽기가 필요하다.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보는 안목 기르기'는 시대적 소명이자 공유 사명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고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깊이 있는 평론으로 그림책 읽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그림책의 세계관〉이다. 2023년 8월, 도서출판 CPU에서 출간되었다.

그동안 그림책은 유아·아동 교육 도서로서 인식됐지만, 청소년 등 성인을 위한 논리·사고력·심리·철학·해석학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매체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 위치가 다양해졌고 독자적인 예술로 인정받음으로 그 가치 또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그림책 추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그림책인가? 무엇을 위한 그림책인가? 어떤 그림책을 먼저 만나야 하는가?” 등의 길잡이가 더욱 필요하다.

본서의 〈그림책의 세계관〉은 이러한 길잡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다. 또한 문화 복음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림책 평론에서 세계관 분석의 필요성과 읽기의 문제점을, 12장부터 17장까지는 포스트모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투사된 '문화막시즘'의 이슈를 다루었다. 18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림책을 읽고 평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기술, 해석, 판단'의 3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모두 함께 읽고 비평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 그림책 연구자, 그림책 비평가·평론가 등 이들에게 지적 자원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그림책의 세계관〉의 1장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 그림책으로'란 주제로 시작된다.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창으로 비유하였다. 찰스 키핑(Charles Keeping)의 〈창 너머〉, 〈아침에 문을 열면〉을 소개하였다. 어린이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림책이란 그림책의 시공간 속에

서 환희와 기쁨, 충만함의 정서를 마음껏 상상하게 하는 것, 그림책을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내면 깊숙이 살아 움직여 말을 건넬 수 있는 것 등을 꿈꾸게 하는 창이다. 저자는 그것이 그림책의 힘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림책에 투영된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 글과 그림을 세심하게 읽고, 작가가 보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견해, 작가의 근본 신념 등을 찾아보는 노력과 그림책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우리 문화 속에 은밀히 숨어 있는 이야기를 깨닫고 성찰한다면, 더욱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힘을 기를 수 있는 책이 본서이다.

저자는 5장 '경계 안의 삶이 누리는 자유'에서 '경계 없음'의 본질에 대하여 질문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그림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림책 <로지의 산책>은 주인공 로지가 산책 중 아찔했던 상황을 통해 아찔했던 저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개한다. 이는 독자가 능동적 태도로 책을 어떻게 읽는지, 은혜의 삶과 삶의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저자는 그림책 <강물이 흘러가도>, <새가 된 청소부> 등 그림책 이야기와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교차 공감하며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의 기쁨을 독자와 나누고 있다.

본서에서 12장부터 17장까지 소개된 그림책들의 세계를 보다 큰 창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서평 글에 익숙한 독자라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 읽기와 모순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엄마가 알을 낳았데>, <세 강도>,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고릴라>,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등의 그림책은 매우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아하!"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 그림책을 잘 선별

해야겠군요!"란 탄성이 나올 것이다. 이들 이야기에 숨어있는 주제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곧 깨닫게 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림책은 유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그림책의 독자층이 더 이상 유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그림책 세계는 결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 어떤 부모도 선생님도 몸에 나쁜 그림책을 주고 싶은 어른은 없다. 따라서 어린이 독자를 위한 그림책 선별에 기준이 되는 평론이 필요하며, 어떤 세계관으로 평론하는지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는 믿을 만한 세계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문화와 복음 사이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어른들의 사명일 것이다.

그림책 전문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에서 배우는 <그림책의 세계관>은 실질적인 분별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의 '자'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림책 읽기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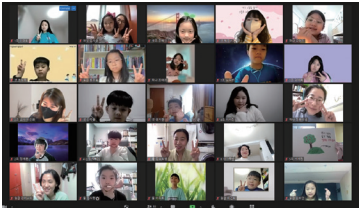


✍ 글쓴이 지상선

한국독서치료학회 수련감독이자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이다.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독서코칭연구소 소장이자 동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치유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감리교회 성도이다.

충현교회 초등학생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유현정 (충현교회 유년부 전도사)
신경철 (충현교회 초등부 담당 목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효과적인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어렸을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현교회는 취학부 어린이(1~6학년)를 대상으로 ‘토요 기독교 세계관 학교’(이하 ‘토기세’)를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각 학기의 수업은 보통 4~6주 동안 이루어지고 ‘생각’, ‘미디어’, ‘성품’, ‘성교육’ 등의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한다. 가정과 연계하여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코로나 19’가 성행했던 시기에는

비대면(Zoom) 교육으로 중단없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처음 ‘토기세’를 진행하게 된 것은 2019년이였다. 2018년에 충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한규삼 목사님은 미래 세대 신앙교육을 중점으로 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바탕으로 취학부는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준비했다. 충현교회 학생 대다수가 모태신앙과 유아세례자들로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에서 자신의 신앙으로의 전환, ‘선포되는 말씀’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토기세’가 이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한 걸음을 내딛도록 그 장을 열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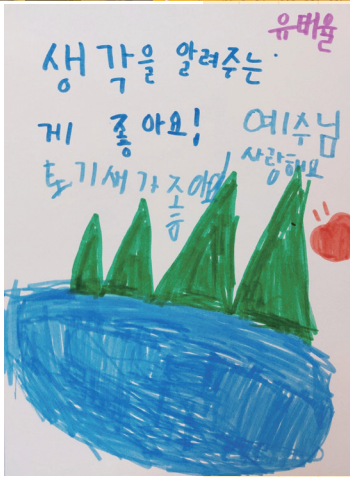
올해 충현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전 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품性교육’이라는 주제로 ‘토기세’와 어린이성교육 캠프를 진행한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체 교재를 만들었고 학년별 집중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 세미나에서는 부모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육하는 기쁨과 서로를 향한 배려를 나누며, 세상의 풍조와 함께 맞설 준비를 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충현교회 ‘토기세’를 통해 자라날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유현정 & 신경철

(좌) 유현정: 충신대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충현교회 유년부 담당 전도사(2018년 10월~현재)로 섬기고 있다. 이외 어와나와마더와이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 신경철: 충신대 신학과와 충신대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충현교회 초등부 담당 목사(2020년 10월~현재)로 섬기고 있다.

충현교회 기독교 세계관 학교 수료자 소감



이엘리 (초등부 학부모)

“요즘 집에서 갈등이 있었던 주제인 기독교인으로서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아이가 토기세에 참여하여 배워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학부모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초등학생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사실은 아이들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없어도 딱히 불편하지 않으나 막상 어른들이 모든 생활을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비중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모든 부모님도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금씩 또는 다이어트를 하며 서로가 더욱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전자 미디어 사용 외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들었습니다.”

ooo (유년부 '토기세' 교사)

“작년에 비대면으로 했던 '토기세'가 드디어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도 할 말이 너무 많은 아이도 다 함께 '하나님 나라', '공부', '친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부모님들도 또래 자녀에 대해 얘기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거라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생각의 뿌리를 튼튼히 키워야 해요. 내년에는 또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집니다.”

이선화 (초등부 학부모 교사)

“보석같은 아이들과 하나님께 방향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저 역시 성장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걸을 수 있었습니다. 6주의 귀한 시간,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노시원 (초등부 4학년)

“천국, 공부, 친구 등 각 주제에 관해 목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좋았고 조모임 시간에 친구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고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특히 천국과 지옥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기억에 남는다. 토요일에도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ooo (초등부 학부모)

“늘 들어오던 찬양 헌금 기도 등의 의미를 아이와 함께 나누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이의 평소 생각과 믿음을 점검하고 배우며 기도할 제목들이 보여 감사했습니다. 그린 그림이 기록으로 남아 시절을 추억하고 훗날 믿음의 성장곡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5) - 철학과 기독교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철학자 중, 네덜란드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정립한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피조 세계를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면에서 그의 철학은 비판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사상은 반드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가의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그가 씨름한 서양 철학 전체를 그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가 기독교 철학자로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경적이면서도 비판적 관점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의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 사상을 5회에 걸쳐 간략히 나누고 있다.

1965년 도여베르트가 자유대학교 교수직에서 은퇴할 때 <철학과 기독교>(Philosophy and Christianity)라는 제목의 기념 논문집이 그에게 헌정되었다. 이 논문집에 기고했던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 리차드 크로너(Richard Kroner)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철학적인 작업이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그 문화는 본질에서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약간 단순화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종교, 철학, 과학 그리고 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노력한 도여베르트 사상의 핵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가 단순히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인간 생활 전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면서 도여베르트는 신앙적 전제가 모든 학문 활동 및 문화적 노력에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도여베르트는 세 단계로 구분되는 기독교 철학 체계를 개발했다. 즉, 첫 번째 주저인 <범 이념 철학>(De Wijsbegeerte der Wetsidee)에 진술된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 뿌리 발견, <이론적 사고의 신 비판>(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에서 형성된 이론적 사고의 선형적 비판, 그리고 <철학에서 개혁과 스콜라주의>(Reformatie en Scholastiek in de Wijsbegeerte)와 <갱신 및 반성: 개혁주의 근본 동인에 관해>(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에서 요약된 서양의 사상 및 문화에 나타난 종교적 근본 동인이다.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철학 배후에는 연구에 동기를 유발한 두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대화’(dialogue)와 ‘대립’(antithesis)이다. 카이퍼가 말한 기독교적 원리와 비기독교적 원리 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 사상을 계승하여 성경적 근본 동인과 비성경적 동인들 간에는 분명한 대립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대화하며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공통적인 철학적, 학문적 사상의 공동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를 원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첫 번째 주저를 수정, 보완하여 철학적 사고에 필요한 조건들 또는 전제들에 관한 탐구로서 이론적 사고에 대한 선형적 비판

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그는 철학이 의미의 총체성에 관한 탐구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 뿌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철학의 정의에 대해 비기독교 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론적 사고 자체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선형적 근본이념을 통해 종교적 뿌리 및 기원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그는 이론적 사고를 통한 학문적 지식이란 비논리적 양상들과 논리적 양상 간의 이론적 종합에 의해 획득되며 이것이 일어나는 곳은 인간 존재의 집중점인 마음이므로 학문의 주체는 인간이며 마음에서 학문적 지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 또한 자충족적이 아니고 그 궁극적 기원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 이론적 사고도 종교적 전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본다. 이것이 그가 영어로 출판한 두 번째 주저의 핵심 내용이다.

도어베르트의 관심은 철학적, 학문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이론적 사고의 선형적 비판과 함께 종교적 근본 동인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에 의하면 이런 기본 동인은 이론적 사고의 출발점인 동시에 문화적 발전 과정 및 방향까지 결정한다. 그는 이전에도 기독교적 문화관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유럽의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 발전 방향을 설정하려는 방법으로 이런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서양 문화의 원천적 뿌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의 세속화된 문화를 개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종교적 기본 동인 사상을 발전시켰고 이 동인으로 그는 서양의 철학 및 문화 전반에 대해 선형적 비판을 시도했다.

도어베르트는 회랍 철학 및 문화의 종교적 기본 동인을 '질료'(matter)와 '형상'(form)으로, 기독교적 동인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중세 철학 및 문화의 근본 동인은 '자연'(nature)과 '은혜'(grace)로, 근대 서구의 인본주의 철학 및 문화의 기본 동인은 '자연'(nature)과 '자유'(freedom)라고 진단한다. 여기서 그는 성경적 동인을 제외한 세 동인은 그 자체가 변증법적 모순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이론적 사고 및 문화 현상에서 갈등과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을 논증한다. 따라서 질료와 형상의 이원론적 종교 동인을 기반으로 한 고대 회랍 및 로마 세계는 계속 발전할 수 없었고 중세의 철학 및 문화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중세적 근본 동인도 회랍적 동인과 성경적 동인을 타협, 종합한 것이므로 결국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를 통해 근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근대 철학 및 문화도 자연과학을 절대시하는 '자연' 동인과 인간의 인격 이상을 강조하는 '자유' 동인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서양 문화의 위기라고 그는 진단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성경적 기본 동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대안이 없음을 그는 강조한다. 즉 모든 인본주의적 기본 동인에 의한 학문적 사고 및 문화 개혁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조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성경적 동인에 의한 학문과 문화의 발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FFAITH & LIFE**



✍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제5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선하신 하나님,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실까?

‘제5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가 “선하신 하나님,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실까?”라는 주제로, 9개 대학 약 50명의 대학원생 및 약 10명의 교수와 사역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기독교계계관학술동역회의 후원으로 지난 8월 11일(금) 저녁 8시부터 12일(토) 낮 1시까지 대전 KAIST W1 동 1층 영상강의실(온라인 병행)에서 있었다.

첫째 날(8월 11일 금요일 저녁)의 첫 번째 순서는 오픈 행사였는데, 석준준 목사(서울대 캠퍼스의 선교사)의 사회로 장갑덕 목사(카이스트교회)의 환영사, 윤완철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고세일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학연 부회회장), 최태연 박사(백석대 기독교철학 은퇴교수), 동역회 이사)의 축사, 신국원 박사(기독교계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기도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이동욱 형제(카이스트 로봇학제 석사과정)의 사회로 선정 도서 <신정론 논쟁 : 악에 관한 5가지 관점>(새물결플러스, 2020)을 대학원생 10명의 발제

를 통해 모든 참가자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활발히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 즉 ‘신정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신정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섯 명의 기독교 사상가들의 논증을 통하여 신정론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볼 수 있었다. 각 발제자가 정리한 책의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문선(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의 1장 ‘고전적 관점’과 김은진(서울대 디자인학부 박사과정)의 6장 ‘고전적 관점의 답변’, 고성종(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의 2장 ‘몰리나주의 관점’과 김은정(서울대 불어교육학 박사)의 7장 ‘몰리나주의 관점의 답변’, 고의천(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의 3장 ‘열린 유신론 관점’과 임찬송(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의 ‘열린 유신론 관점의 답변’, 장석현(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의 4장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과 임승찬(카이스트 컴퓨터그래픽 박사과정)의 9장 ‘본



질적 케노시스 관점의 답변’, 이예원(카이스트 컴퓨터그래픽 석사과정)의 5장 ‘회의적 유신론 관점’과 박은찬(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의 10장 ‘회의적 유신론 관점의 답변’ 등이다.

독서 나눔 콘서트의 첫째 날 모임이 저녁 시간이 된 것은 대학원생들 다수가 매여있는 근무 및 연구 시간 때문이었는데, 발제와 전체 자유토론의 열기는 예정되었던 11시를 훨씬 넘긴 밤 12시 30분까지 이어졌고, 숙소에 가서도 다수가 큰 방에 모여 새벽 4시까지 후속 토론과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

둘째 날(2월 11일 토요일 오전) 모임은 홍성욱 박사(한국천문연구원, RACS 간사)의 사회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는 조나은(성균관대 교육철학 석사과정)의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의 <헤아려본 슬픔>(홍성사, 2019)에 대한 정리 발제와 후속 자유토론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악과 고통에 관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각자 실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이야기를 진솔히 나누고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기에, 여러 참가자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때로는 숙연해지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임 마지막 시간에 사회자의 인도로 예정 없었던 서로를 위한 통성 기도와 중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 2부에서는 <악과 고통의 담론>(하기서원, 2017)의 저자 정승태 박사(침신대 종교철학 교수)의 초청특강 후 열띤 질의와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제5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는 처음에 내세운 표어대로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으로 풍성히 채워졌다. 모든 순서를 통해 나는 내용과 토론의 열기로 볼 때, 지난 4

회까지와 비교하면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독서 나눔 콘서트 준비 과정에는 특별히 약 3주 전부터 13명의 학생 준비위원과 5명의 섬김이(교수 및 사역자)가 함께 하는 모든 참가자와 순서를 위한 간절한 릴레이 금식 기도의 시간도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은혜로운 기도의 응답이 많았다. 우선 하나님은 준비위원 학생들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참가자가 많이 모이게 하셨다. 그래서 추가 숙소와 서울에서 이동하는 차량 등이 더 필요했는데,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들에 의해서 채워졌다. 이영조 교수(서울대 통계학과)의 차량 렌트비 후원과 윤헌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의 차량 제공, 박문식 교수(한남대 기계공학부, 동역회 이사)의 둘째 날 전체 아침 식사 섬김, 윤완철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카페 후식(Tea) 제공, 카이스트교회와 고려대학교회의 숙소(계룡스팟텔 및 침신대 게스트하우스) 후원과 제공이 그것이다. 모두 자발적 섬김과 헌신이었다.

방학마다 이어지는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의 비전은 한결같다. 새벽이슬 같은 그리스도인 청년 지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영성과 지성, 신앙의 자리와 세상 달란트 농사의 자리가 이원화되지 않는 균형감으로 함께 잘 성장해 가기를 서로 축복하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모든 지체 역시 이 청년들이 우리 시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으로서, 그리고 요셉, 다니엘, 다윗, 에스더 같은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FRITH & LIFE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개최

주제 : 공공선 · 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

일시 : 2023년 11월 18일(토) 13:00 ~ 18:00 (대학원생부 세션 10:00 ~ 12:00)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 12동 401호

주제강연 :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대희(샘병원 원장), 김유준(주빌리교회/송실대 초빙교수)

※ 일반주제 분과발표 논문신청 안내: 논문신청 및 요약본 제출 마감 2023년 10월 21일(토) & 논문 전문 제출 마감 2023년 10월 28일(토)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8권 3호(9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28권 3호는 이월 재심논문 1편과 8편의 논문 투고 중에서 총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신앙과 학문> 28권 4호(12월 31일 발간예정)는 오는 10월 31일(화) 제출 마감.

제5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

주제 : 선하신 하나님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실까?

일시 & 장소 : 2023년 8월 11일(금) ~ 12일(토), KAIST W1동 1층 영상강의실

※ 약 50명의 대학원생 및 약 10명의 교수와 사역자가 함께 참여함

2023년 <청년 영상·미디어 아카데미>(8주 과정)

일시 : 2023년 7월 4일~8월 29일(매주 화요일, 8주간)

강의 : 기획(1주), 장비의 이해(1주), 사진/촬영 기초(2주), 시각 커뮤니케이션(1주), 편집 기초(2주), 실습 & 비전 나눔(1주)

장소 : CTS 빌딩 9층, ※ 현재 참석인원 10명

주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관 : KWMA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 한국거점미디어 M센터, Next M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표기는 신임, 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송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송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승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송실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용철(송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9월부터 CTC 기독교세계관학교(온오프라인) '하이세 아카데미' 4학기 '하나님, 꿈이 뭐예요'를 개강한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 **부모 교육** : 9월부터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호빗 읽기'를 운영한다.
- **대학생 교육** : 9월부터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을 개강한다.
-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 9월부터 부산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1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3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성광교회(남세주 목사)에서 4학기 어린이 세계관학교 '하나님, 꿈이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개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 손봉호 지음 | 312면 | 15,000원 | CUP

〈**그림책의 세계관**〉 현은자 지음 | 220면 | 13,000원 | CUP

〈**예수처럼 리드하라**〉 켄 블랜차드, 필 하시스, 필리스 헨드리 지음 | 윤종석 옮김 | 400면 | 22,000원 | CUP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23년 7월, 8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7월	2023년 8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7월	2023년 8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1,670,000	6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300,000	5,300,000
	임원회비	490,000	63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142,500	3,907,500		소계	5,700,000	5,700,000
	기관후원금	4,800,000	2,8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52,235	486,441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64,869	443,743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0,000	13,580
	VIEW후원금	1,155,000	4,205,000		소모품비	12,970	3,8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13,500	443,500		식비	266,600	375,46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910,620	1,149,930
	기타	60,000	0		퇴직연금	426,280	426,280
	소계	12,791,000	12,716,0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40,556	358,125	
			소계	3,344,130	4,217,359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55,045	4,145,04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14,770	4,204,77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59,80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55,04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480,620	463,700		소계	0	3,314,840
	소계	480,620	463,700	기타	세금	2,120	37,360
			잡비		800	300	
			소계		2,920	37,66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160,000	-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22,000	1,210,000
	세계관기타수입	-	-		세계관행사준비		700,000
	소계	160,000	0		세계관기타		0
			소계		22,000	1,91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10,000	11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355,04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2,623,450	0
	학술지게재료	739,000	0		학술지발송비	746,14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750,000	0
	학회기타수입	0	1,000,000		학회조교비	0	0
	소계	849,000	1,110,000		소계	4,474,63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048,965	1,016,13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16,135	981,905
	전월 이니시스 입금	10,000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0
	소계	1,058,965	1,016,135		소계	1,016,135	981,905
당월 수입액		15,339,585	15,305,835	당월 지출액		15,774,585	20,366,534
전월 이월액		28,371,006	27,936,006	차월 이월액 (잔액)		27,936,006	22,875,307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3년 7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광도영, 구성덕, 권지연,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삿뿔,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정명, 김정식, 김정원, 김태영, 김형근,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형,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수,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원, 김민성, 김병국,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삿뿔,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영,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상정, 김아람, 김아련,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사회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송범, 양성근,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엄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이상원, 이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철,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장혜원,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주, 조현진,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열, 최성두, 최연무, 최용성, 최은정, 최종빈, 최한빈, 최해진, 최영삼, 최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고선숙, 구준호,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양승규,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준, 추태하, 황형철, 황정진, 황해원, 4만 강은숙, 우병훈, 문준호, 5만 강다영,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조창희, 황준용, 6만 방연규, 석종준, 송종철, 이근호, 7만 강연성, 최태연,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정수영, 장정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장민호, 정병택, 하연희, 15만 최현일, 100만 정희영.

계 8,051,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도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할렘루타교회

계 4,850,000원

전체 12,901,000원

회원후원

(2023년 8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광도영, 구성덕, 권지연,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삿뿔,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정명, 김정식, 김정원, 김태영, 김형근,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한지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형, 고선욱,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김원평, 김경진, 김광태, 김규수,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원, 김민성, 김병국,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삿뿔,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영,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상정, 김아람, 김아련,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사회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송범, 양성근,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엄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이상원, 이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철,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주, 조현진,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열, 최성두, 최연무, 최용성, 최은정, 최종빈, 최한빈, 최해진, 최영삼, 최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은숙, 김보경, 김용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양승규,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강인규,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김경모,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준, 추태하, 황형철, 황정진, 황해원, 4만 문석윤, 우병훈, 전운조, 4만5천 박성태, 5만 강다영,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조창희, 황준용, 6만 김성원, 김욱, 석종준, 송종철, 유은희, 정강희, 정희정, 조봉래, 7만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정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15만 최현일,

계 6,926,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양제일교회, 고재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도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300만 (뽕뽕있는사람)VIEW후원

계 5,900,000원

전체 12,826,000원

* 학회 등록비는 학회행사수입으로 후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The 40th Annu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

Public Good, Common Good and
the Way for Christians to Go Forward

23.11.18 (토)

13:00~18:00

10:00~12:00 대학원생 세션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
12동 401호

주제강연

1.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의 공공선 기여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 사회적 기업 활동과 공동선 추구 활동을 통한 기독교 사명

이대희 원장
샘병원 대표이사

3. 공동선을 향한 청년사역

김유준 목사
주빌리교회 / 송실대 초빙교수

패널토의

주제강연자 · 이명헌 교수 · 이병주 변호사
인천대 경제학과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패널토의 사회

박동엽 교수
서울대학교 / 실행위원장

일반주제 분과발표

▶ 대학원생, 경제·경영, 인문학, 사회과학, 신학·철학, 세계관, 캠퍼스 선교, 공연·예술, 학제간 연구

발표논문신청안내

- ▶ 2023.10.21.(토) 논문신청 및 요약본 마감
- ▶ 2023.10.28.(토) 논문 전문 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2023kacs40

논문제출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worldview.or.kr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의 02-3272-4967 / gihakyeon@gmail.com (학회) 후원 새로남교회